

신안 울도·굴도·도덕도 신발전지역 지정

전남 서남권 해양관광 성장거점으로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부권 해양 관광단지 개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5일 “서남권 신(新)발전지역 지구인 신안 울도 식물테마파크, 굴도 해양펜션단지, 도덕도 해양리조트 개발사업 등이 지난 3일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도 식물테마파크는 신안 지도읍 울도 22만7000㎡에 민자 1600억원을 투자해 펜션단지, 수영장, 식물원, 동백동산 등을 조성한다.

굴도 해양펜션단지는 신안 임자면 굴도 7만9000㎡에 민자 1320억 원을 들여 음식점, 펜션단지, 해양레포츠 시설이 주된 내용이다.

또 신안 증도면 도덕도에는 민자 1000억 원을 들여 7만8000㎡에 송·원대 해저유물을 활용한 박물관, 해양펜션, 마리나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3개 지구는 일부 공사가 시작되거나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과 개발사업 시행기업은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남권 신발전지역 위치도



관련 이 사업은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목포, 신안, 무안, 진도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은 묶어 개발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목포 세라믹산단과 해남 우수영 관광해협타운, 신안 에코리조트 등 나머지 지구 지정도 하반기 중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울 용산역에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지역기업 수출 촉진... 이용료 무료

서울 용산역에 지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서울 용산역 4층에서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개소식을 열었다.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109㎡ 규모로,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끌어올리

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을 맡고, 목포·순천·여수·광양 상공회의소가 지원하게 된다.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된다. VIP실 등 비즈니스 회의 시설 4개와 지역우수제품 전시 공간, 컴퓨터와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라운지 시설 중 회의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무·대기 공간은 예약 또는 현장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 3일 서울 용산역 4층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개소식이 열렸다.

# 리더십 실종·분열이 부른 호남정치의 몰락

## 뉴스 초점

### 민주 새 지도부 호남 전멸

#### 정치적 존재감 걱정...지명직 최고에 기멸 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도부에 광주·전남 등 호남 정치권 인사들이 단 한명도 진출하지 못한 것이다.

광주의 이용섭 의원이 대표 경선에서 패배했고, 전북의 유성열 의원도 최고위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남지역 주자로 나선 황주홍 의원은 최고위원 컷-오프에서 이미 탈락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노와 주류에게 돌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세력 교체의 유단은 호남 정치권이 맞은 격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심장으로 자부했던 호남 정치권이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에 진입하지 못한 적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 호남 정치권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더십 실종과 분열로 인해 정치적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열린우리계와 구 민주계가 반목했다면 최근에는 주류와 비주류 갈리면서 ‘눈치 보기’ 행태가 만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 정치권의 분열상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관측이 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정치권 역량의 극대화에서 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자를 의면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한길 후보에 대해 주승용, 이윤석 의원 등이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상당수의 지역 의원들이 몰릴 지원에 나선 반면, 지역 주자인 이용섭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공개 지지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직을 명분으로 종립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이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것도 지역 정치권이 결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으로는 김한길 대표의 배려(?)가 있어야 호남 정치권의 지도부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영남과 강원 등 정치적 취약 지역과 여성, 청년, 노인 등에 대해 최

고위원직을 배려해왔던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이 민주당의 취약지역이 된 격’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행거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의 현안을 하나라도 챙기려면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단 한명도 진입하지 못한 참담한 현실을 할 말이 없다”며 “지역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라도 제발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5일 최고위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문제를 비롯해 사무총장, 전략본부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주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때깔’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주시 영강동 일대 1.9km 거리 곳곳에 ‘아이사랑 희망’이란 주제로 완성한 벽화. 자원봉사자들이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완성한 벽화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아픈 상처는 싹~ 사랑 가득 희망 가득 나주

### ‘I LOVE HOPE 벽화’ 완성... 1.9km 7000명 참가 어린이날 이색선물

지역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각 지역 봉사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나주 벽화’가 5일 완성됐다. 나주지역 봉사단체인 ‘때깔’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영강초등학교 주변 1.9km의 벽화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역 아동들이 밝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I(아이)LOVE(사랑)HOPE(희망) 벽화 그리기’에는 지역시민단체와 동산대, 광주여대 등 지역대학, 각 지역 봉사단체 7000여명 참여했다.

주최 측은 이날 어린이날에 맞춰 일정을

앞당겨 지역 어린이들에게 이색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동산대 경찰행정학과 1학년 신병룡(여·20)씨는 “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밝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밝은 나주를 만들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든 때깔은 지난 2010년 나주초등 학교 앞 마을 벽 구꾸기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년째 그림을 통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종환 때깔 공동대표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얼룩진 나주에 아픈 상처를 그림으로 지워버리고 어린이들이 밝은 환경에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벽화를 통해 나주가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로 알려져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송영철기자 yscn@

### 회식코너 임대운영자 모집

강진군수협 회식코너 임대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1. 위치**  
○ 강진군 마량면 미향로 189번지 강진군수협 활선이 위판장 2층
- 2. 임대건물 면적**  
○ 188.36㎡ (구 56.9평) \* 화장실은 2층 복도에 별도로 있음.
- 3. 건물 내용**  
○ 2층에 위치하여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 전망이 좋음.  
○ 좌식형태의 시식 공간과 방 2개, 주방 1칸, 창고 1칸
- 4. 주요 임대조건**  
기본 설치 비용외의 주방시설 및 영업장비 일체를 임대운영자가 시설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건물의 변형 사용부분은 원상복구 조건임.
- 5. 영업형태** : 당 수협 총무주도과에 문의 바람. (061-432-2081)
- 6. 모집기간** : 2013. 5. 2 ~ 5. 10 (9일간)
- 7. 모집조건**  
보증금 5천만 원을 고정으로 제시하며 월 임대료 5십만원을 기본으로 제시하여 모집신청자가 1인 이상 일 때는 월세를 경쟁도둑하여 높은 금액의 제시자를 임대운영자로 결정함.  
※모집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조건을 월세와 연계하여 협의가능함.
- 8. 모집 신청 시 제출서류**  
가. 모집신청서 (당 수협 소정 서식) ..... 1통  
나. 임대조건 수락서 ..... 1통  
다. 주민등록 등본 ..... 1통
- 9. 영업개시 가능일** : 즉시 입주하여 영업가능 함,  
공고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당 수협 총무과 432-2081번으로 문의 바람니다.  
2013. 5.  
**강진군수협협동조합장**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자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뻐뻐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과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과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정보심의결과 제120106-공-9819호 [광고]